

# 이동과 경계의 세계 문화에서 양성성으로 현현되는 한국전통 서사 무가 ‘바리데기’의 문화적 잔상과 의미작용\*

-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

표 정 옥\*\*

1. 들어가며
2. 대리아들의 욕망과 부채의식의 잔상으로서의 전통적 양성성
3. 터잡기와 땅 굳히기의 도정으로서의 보편적 양성성
4. 과도의 존재에서 소통의 창조자로 가는 세계적 양성성
5. 나오며

## 〈국문초록〉

우리의 전통서사를 현재 역사적인 사실과 접목시켜 새로운 오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서가의 신화전략이다. 현대인들은 장소의 이동에서 오는 공간의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의 디아스포라를 겪고 살아간다. 장 보드리야르가 진단했던 시뮬라시옹의 원리처럼 이미 가상세계가 실제세계를 대체한 지 오래다. 사람들은 가상공간의 이야기와 놀이를 더 이상 현실과 분리시키지 않는다. 황석영의 『바리데기』 서사는 어쩌면 지극히 켈트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현대

\* 본 연구는 2011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 조교수

이주의 문제, 탈북의 문제, 조선족의 삶, 민족간 질서, 테러, 전쟁, 자본주의의 폐해, 그리고 전통서사의 이야기 등이 한 천에 조각조각 수 놓아진 듯하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은 리얼리즘과 환상성을 교묘하게 결합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동시에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것을 넘어서 세계화되는 보편성을 가진다.

본 논의는 세 가지 양성성에 관심을 두기로 한다. 첫째, 전통서사 무가인 <바리데기>에서 보여준 대리아들의 과도한 욕망과 그로 인해 생기는 여성의 부채의식에 주목할 것이다. 원치 않는 자식으로 태어난 많은 여성들은 아들의 부채의식의 잔상을 머금으면서 타율적인 양성성을 가져야 했다. 둘째, 우리 신화는 전통적으로 이주한 여신들과 터주신인 남성들과의 끊임없는 대결의 장이었다. 이주한 여신들은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굳히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들이고 온갖 시련을 겪는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들이 남성성을 간직한 양성성을 가져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가진다. 이는 민족을 넘어선 보편성을 가진다. 셋째, 여성 신들은 과도의 공간에서 늘 소통의 매개자로 진화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성은 양성화 되어가며 양성성은 세계의 소통자로 환원된다. 본고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한 이상적인 양성성을 현대 문화의 가장 큰 변화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따라서 황석영의 『바리데기』가 바리를 통해서 어떻게 양성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심도 있게 찾아가 볼 것이다. 또한 바리데기의 양성성이 지역의 문화를 넘어서 세계문학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되는 것을 목도할 것이다.

**주제어** : 이동과 경계, 양성성, 바리데기, 문화적 잔상, 의미작용, 신화전략, 현대세계문화

## 1. 들어가며

세계문화 속에서 한류는 비단 영화와 가요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

니다. 칸영화제와 베니스영화제 같은 국제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약진은 최근에 세계의 주목을 받아 오고 있고, K-pop과 비보이와 난타 등 문화 콘텐츠 부분의 한류는 2000년대에 이르러 세계에서 부상하는 문화 상품이 되어왔다. 그러한 가운데 소설 역시 한류의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소설 한류, 유럽 독자 사로잡다<sup>2)</sup>」와 「한국문학 유럽서 뿌리 내린다<sup>3)</sup>」 등의 표제기사가 나올 정도로 문학계의 변화 또한 중요한 기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2000년대 후반 한류소설은 프랑스를 전초기지로 삼고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황석영의 『손님』이라는 작품이 프랑스 해외 문학상 소설 부분 후보로 선정되었고, 2005년에는 그의 작품 『오래된 정원』이 르몽드지가 선정한 올해 소설 7권 중 하나로 선정되는 쾌거를 낳기도 했다. 프랑스의 줄마 출판사를 중심으로 황석영의 문학이 세계로 전파되는가 하면 프랑스의 갈리마르 출판사에서는 소설가 김훈의 『칼의 노래』를 계약해서 보급하고 프랑스 쇠이유 출판사는 오정희의 『바람의 뉘』과 『새』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문열이 독보적으로 해외에 알려졌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많은 작가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김영하의 『검은꽃』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등 역시 최근에 프랑스와 미국에 알려지고 있다. 이승우 역시 2000년대 『생의 이면』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간 외국소설 10권’에 선정됨과 동시에 ‘가을 신간 권장도서목록 30권’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승우는 2012년 『식물들의 사생활』이라는 장편소설로 또다시 프랑스 문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능한 번역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문학이 세계화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한류의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현대 세계 문화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느슨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동과 경계라는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이 문화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경계를 더욱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

2) 「소설 한류, 유럽 독자 사로잡다」, 『기자수첩』, 2006. 2. 3.

3) 「한국문학: 유럽서 뿌리 내린다」, 『서울신문』, 2012. 4. 10.

는 부지불식간에 민족 고유의 독창적인 신화를 찾고자 하는 회귀본능을 느낀다. 문화가 충돌하는 과도기에서 문화적 공황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 고유의 신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고려시대 국사를 지낸 보각국사 일연은 몽고의 침입으로 민족이 와해되고 있을 때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기한 이야기를 모아 ‘유사’라 이름 짓고 국민이나 민족을 상상적으로 응집시키려고 했다. 마찬가지로 1900년대 초 일제침략기에 육당 최남선은 일연의 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신화와 『삼국유사』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최남선은 단군을 세계의 보편적 신화 원리로 끌어들이려는 지난한 노력을 펼친다. 최남선은 <불함문화론>을 통해 우리 신화의 특수성이 세계 보편신화의 기틀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물론 일연이나 최남선의 시대처럼 오늘날이 정치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동과 경계의 다성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상력을 같은 범주에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동과 경계의 세계 문화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작가는 매우 많지만 가장 한국적인 전통서사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화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황석영은 유의미하게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황석영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세계화라는 이야기 속에는 지역화라는 것이 들어 있는<sup>4)</sup>” 원리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 황석영은 동아시아의 서사 삼부작인 『손님』 『심청』 『바리데기』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전통서사의 이야기가 한민족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 문화의 다양한 현실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신화 작용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황석영은 우리의 전통서사를 현재 역사적인 사실과 접목시켜 새로운 오늘날의 세계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보편적인 신화전략을 구사한다. 현대인들은 장소의 이동에서 오는 공간의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의 디아스포라를 겪고 살아간다. 장 보드리야르가 진단

4) 『라디오: 시사자키-황석영과의 인터뷰』, 2011. 6. 9.

했던 시물라시옹의 원리처럼 이미 가상세계가 실제세계를 대체한 지 오래다. 사람들은 가상공간의 이야기와 놀이를 더 이상 현실과 분리시키지 않는다. 황석영의 『바리데기』 서사는 어쩌면 지극히 켄트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현대 이주의 문제, 탈북의 문제, 조선족의 삶, 민족 간 질서, 테러, 전쟁, 자본주의의 폐해, 그리고 전통 서사의 이야기 등이 한 천에 조각조각 수놓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은 리얼리즘과 환상성을 교묘하게 결합시키는 효과를 거두면서 지역적인 것을 세계적인 문제로 환원하는 효과를 지닌다.

2007년에 발표된 『바리데기』는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는 평가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서사의 창조적 수용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리얼리즘의 퇴색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있어왔다. 긍정적으로는 전통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평가들은 전통 서사의 현대적 수용이 보여줄 수 있는 쾌거라고 말한다.<sup>5)</sup> 양진오는 황석영이 보여주는 논리가 일국의 논리를 극복하는 경제확산의 노력과 동시에 세계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지구지적인 현안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서사의 본질적인 리얼리즘과 환상성에 관한 근본적인 장르의 문제를 논의한 관점<sup>6)</sup>들 역시 긍정의 반대편에서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설 장르의 고유성과 황석영의 서사 기법을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권성우는 황석영의 리얼리즘 의식

5) 고인환,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전통 양식 전용 양상 연구-『손님』, 『심청』,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6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175-200쪽. 문재원, 「황석영 『심청』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한국문학논총』 43, 한국문화학회, 2006, 351-375쪽.

미야자마 히로시, 「황석영 『심청』과 19세기 동아시아」, 『역사비평』 67, 역사문제연구소, 2004, 123-134쪽.

양진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1집, 한민족어문학회, 74-92쪽.

6) 권성우, 「서사의 창조적 갱신과 리얼리즘의 퇴행 사이-황석영의 <바리데기>론」, 『한민족문화연구』 제24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229-245쪽.

김경수, 「작가의 욕망과 소설의 괴리-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대한 한 생각」, 『황해문화』 2006년 겨울호, 415-420쪽.

을 문제 삼으면서 작품이 궁극적으로 찾고자했던 리얼리즘적인 진실인 ‘이주’와 ‘조화’는 후반부에 와서야 미약하게 보여주었다는 혹평을 보인다.

둘째, 황석영의 작품 속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다.<sup>7)</sup> 황석영의 여성 주인공이 근대화의 타자로서 존재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근대화의 주체인 남성에게 의해 객관화되면서 근대화의 모진 풍파를 모두 견뎌야 하는 여성을 통해 남성의 시선과 남성의 서사가 가지는 근대화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여성 주인공들의 시련과 고난은 지역과 경계를 넘나들면서 현대적 삶의 심층을 적나라하게 탐색해 나간다는 것이다. 주로 여성의 몸을 탐하는 남성의 시선에 의해서 여성이 재현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현대의 다문화 사회의 디아스포라 현상에 주목한 논의들이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전통 서사의 서사를 접목시켰다는 다소 긍정적인 논의들이다.<sup>8)</sup> 이동과 경계의 문화에서 느끼는 이산체험과 디아스포라의 정신적 아노미 상태를 전통 무가서사인 바리의 여정과 동일시한 작품들이다. 디아스포라의 사회에서 이산의 아픔을 치유해 가는 바리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조화와 협력의 비전이라고 평가한다. 심지어 황석

---

7) 김미영,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 2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419-444쪽.

류보선, 「모성의 시간, 혹은 모더니티의 거울」, 『심청 하』 해설, 문학동네, 2003, 311-328쪽.

박숙자, 「여성의 몸을 탐하는 남성의 서사-황석영의 『심청』과 김영하의 『검은 꽃』」, 『여성과 사회』 제16호, 한국여성연구소, 2005, 216-235쪽.

8) 유경수, 「다원적 소통을 향한 디아스포라적 상상력-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7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박정근, 「디아스포라로 인한 다문화 사회의 바리데기적 비전-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1호, 한민족문화학회, 2009.

이명원, 「약속 없는 시대의 최저낙원-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대하여」, 『문화과학』, 문학과과학사, 2001 가을호, 305-318쪽.

지용신, 「문학사 밖의 문인들: 재현된 서사와 이산체험의 복원-천운영의 「잘가라 서커스」와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27, 한국문예비평학회, 2008.

심진경, 「한국 문학은 살아 있다-소설과 황석영과의 대화」, 『창작과 비평』 2007년 가을호, 창작과비평사, 305-318쪽.

영의 문학에 등장하는 디아스포라는 필연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된다.

분단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탈북자의 삶을 조망하려고 하는 것은 문학적 실험 정신이자 진취적 글쓰기의 전범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자가 이동하는 문화적 경계가 비단 한정된 사회가 아니라 중국과 영국 등 세계적인 공간이동을 보여준다는 것 역시 글로벌 한 시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민족을 넘어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적인 이야기를 펼치면서 동시에 세계 보편적인 공감을 끌어오려고 한다. 본고는 위의 기존 논의들에서 살펴보았던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 황석영 문학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을 세계적 문화 흐름이자 동시에 우리의 전통문화에 내재된 양성성에 중심을 두고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댄 킨들런 하버드대 박사는 그의 저서 『알파걸』<sup>9)</sup>에서 21세기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읽었다. 즉 페미니스트와는 다른 알파걸들의 탄생 배경에 주목하였다. 알파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의 약자가 아니라 동등한 출발을 가졌다. 주인공 바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21세기 알파걸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 전통서사의 구현체인 바리는 현대 시대에 어떠한 양성성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의는 세 가지에 관심을 두기로 한다. 첫째, 전통서사 무가인 <바리데기>에서 보여준 대리아들의 과도한 욕망과 그로 인해 생기는 여성의 부채의식을 세계보편적인 속성으로 주목할 것이다. 원치 않는 여자로 태어난 많은 여성들은 아들의 부채의식의 잔상을 머금으면서 타율적인 양성성을 가져야 했다. 둘째, 우리 신화는 전통적으로 이주한 여신들과 터주신인 남성들과의 끊임없는 대결의 장이었다. 이주한 여신들은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굳히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들이고 온갖 시련을 겪는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들이 남성성을 간직한 양성성을 가져야 하는 필연적이고 세계 보편적인 이유를 가진다. 셋째, 전통성을 가진 바

---

9) 댄 킨들런, 최정숙 역, 『알파걸』, 시대의창, 2007.

리는 세계 보편성을 가지며 과도의 공간에서 늘 소통의 매개자로 진화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성은 문화적 양성화 과정을 거친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양성성이란 완전한 인간형을 지향하는 100여 년 전 버지니아 울프의 개념이다.<sup>10)</sup> 그녀의 유명한 책 『자기만의 방』의 6장에는 여성과 남성이 융합되는 상상력이 등장한다. 그녀의 또 다른 소설 『올란도』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양성성으로 묘사한 사유에는 한 인간 안에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이 들어있다.<sup>11)</sup> 버지니아에 의하면 양성성의 마음이란 타인의 마음에 열려 있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며 창조적이며 분열되지 않는 정신을 말한다. 그리스의 소포클레스가 쓴 비극 작품 중 하나인 『안티고네』<sup>12)</sup>에서 주인공 안티고네 역시 여성이지만 남성의 이성과 용기를 가진 양성적 인물이다. 이에 대해 주디스 버틀러<sup>13)</sup>는 안티고네의 저항에 대해 크레온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그들의 대립이 남성과 여성의 권력다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게르트 브란트베르그는 『이갈리아의 딸들』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뒤바뀐 세계를 보여주기까지 한다. 그녀는 태생적인 조건보다 후천적인 환경과 사회적 관습에 따라 역할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4)</sup>

양성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신화학과 종교학에서 양성성의 개념을 중요하게 바라본 미르치아 엘리아데<sup>15)</sup>를 접하게 된다. 그는 양성성의 개념을 더욱 전문화시켜서 신체적 양성성과 심리적인 것으로 나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제시한 완전한 인간형이 양성적임에 주목하였다. 본고가 주장하는 양성성은 단순히 생리적인 측면의 양성성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주장 및 인생관 등 모든 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공유된

10) 버지니아 울프, 오진숙 역, 『자기만의 방』, 숲, 2004.

11) 버지니아 울프, 최홍남 역, 『올랜도』, 평단, 2008.

12) 소포클레스, 천병희 역,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 문예출판사, 2006.

13) 주디스 버틀러, 조인순 역,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2005, 26-27쪽.

14) 게르트 브란트베르그, 노옥재 외 역, 『이갈리아의 딸들』, 황금가지, 2011.

15)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 『메피스토펠레스와 양성인』, 문학동네, 2008.



성향을 가진 이상적 인간형을 말한다. 이는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은 주체적인 관용성과 의지력을 가진 인간의 속성을 가진다. 본고가 황석영의 세계문학으로서의 위상을 살펴보면서 『바리데기』에 주목한 것은 바로 바리가 양성적인 속성을 가진 우리 전통 고유의 인물이자 세계화된 양성성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님』과 『오래된 정원』에 이어 『바리데기』는 우리의 전통서사무가의 원형적 인물을 현대로 끄집어냈지만 단순히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인으로서 양성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2. 대리아들의 욕망과 부채의식의 잔상으로써 전통적 양성성

황석영은 작가의 말을 통해 『바리데기』는 오늘날의 새로운 현상인 이동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다시 되풀이되는 전쟁과 갈등의 새 세기에 문화와 종교와 민족과 빈부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다원성의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6)</sup> 그런데 21세기에 왜 하필이면 바리데기인가. 황석영의 말을 빌리면 무당들이 가장 많이 모시는 신이 바리이고 그 이유는 바리가 겪은 고통과 수난이 ‘고통 받은 고통의 치유자’이면서 ‘수난 받은 수난의 해결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바리데기와 같은 출생의 경험치를 가진 경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현대사의 혼한 잔상들이다. 딸보다는 아들을 바라는 전통사회의 욕망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와 20세기 자유주의 시대를 거쳐 계속되어 왔으며 그 잔상은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버지니아 울프는 남성의 대리자로서 여성의 역할에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한다. 그녀는 그러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양성성’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양성성의 상상력은 우리의 전통서

16) 황석영, 『바리데기』, 창작과비평사, 2007, 205쪽.

사 무가와 민간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이다. 특히 민간신화 <세경본풀이>의 경우에는 여성 주인공 자청비가 남장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자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한다.

황석영 소설 『바리데기』속 여성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양성성 연구의 새로운 방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전통적 양성성이 어떻게 세계적인 보편성을 얻는지 인물의 내적 원리를 추적해 볼 것이다. 우리의 문화에서 여성은 즐거운 결말의 이야기를 유도하기보다는 슬픔을 달래주는 일종의 위령제이거나 제의적 상상력을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전설이나 민담이나 신화의 여성 주인공은 억울하게 죽었거나 억울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제물이 되기로 결심을 한 처녀들의 위령이 많았고, 남편과 헤어져 망부석이 되었거나 가족의 안녕을 위해 희생한 모성 또한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성공한 여성들도 무척 많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모진 시련을 감내해야만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고통과 수난의 시련담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또한 정절의 시험대에 늘 던져지거나 모든 욕망을 거세한 여성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 설령 정상적인 사랑을 이룬 경우라도 그녀들은 영웅의 탄생을 위해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버려야만 했었던 것이 신화와 민담의 서사 속 여성들의 풍경이었다. 그렇다면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성 상상력의 근간을 보다 심층적인 원형 상상력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화 속 여성의 상상력은 우리 민간 신화의 여성 상상력의 심층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주목할 것이다. 우리 문화 속 여성 주인공들은 그 자체로써 일종의 설화를 가지고 등장한다. 이 설화의 근간적 상상력은 우리의 민간신화와 전통적으로 함께 읽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삼공본풀이> <원천강본풀이> <바리데기> <궁상이 굿> <성주본풀이> <천지왕본풀이> <칠성본풀이> <세경본풀이> <관창야기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제석본풀이> 등 민간신화의 상상력을 현대적인 여성주의 시각에 입각해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읽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 문화에 재현되거나 현현되는 여성 신화적 상상력을 살피는데 보다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이며 <바리데기>가 왜 전통성을 넘어서 세계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성성으로 소설 『바리데기』의 여성성을 점검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과 문화를 협소하게 읽는 작업이 아니라 세계화된 문화의 거시 구조를 읽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수렵의 시대와 농경의 시대에 여성은 힘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남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어디에서도 남성의 막강한 힘을 요구하는 곳은 없다. 우리 문화의 발달은 양성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는 한쪽으로만 질주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즉 어느 한쪽이 성장하면 다른 한쪽도 함께 그 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양성성이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가는 문화적 현상이다. 따라서 양성성이란 용어는 타인을 향해 열려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창조적인 정신을 갖는다. 양성성은 여성을 이해한다는 혐의의 의미를 넘어서 문화와 인간을 이해한다는 광의의 문화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인류의 역사는 여성에게 시련담과 희생담의 주인공이 되도록 신화화시켰을까. 여기에서 여성의 신화 상상력을 여성이라는 성적인 의미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타자화의 과정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필요성을 염두하면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소설 『바리데기』는 전통서사 무가인 <바리데기>의 원형적 상상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의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난 바리는 남자 아이이길 간절히 소망했던 원치 않은 딸이다. 그녀는 현실 공간에서 딸로 태어났지만 원망 공간에서는 대리아들로 태어난 인물이다. 그녀는 버려져서 비리공덕 할 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키워진다. 그녀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부부에게 거짓 태몽을 꾸게 한 과육의 인물이다. 아들 태몽을 꾸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은 아들을 위한 옷가지를 마련한다. 여자로서의 기대지평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의 현실 공간에서 그녀는 남자의 대리자로서 태어난다. 따라서 그들의 현실 속 실망은 더더욱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바리는 오로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는다. 바다에 버려진 바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영웅의 여정을 살아야 하는 비범함을 강요 받는다. 그녀를 키워준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다. 일곱 번째 딸에게 보이는 부모의 모습은 매우 늙고 초라할 뿐이다. 우리 문화의 막내딸 콤플렉스는 바로 태어난 순간부터 늙은 부모를 보면서 연민을 느껴야 하는 부채의식의 문화적 잔상일 것이다. 우리시대에 바리와 같은 존재들이 무수히 많다. 원치 않는 막내딸로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은 바리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남성사회의 시선에 의해 타자화되는 인물들이다. 오빠를 위해 공장에 가야하고 집안을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산업화 시대의 많은 여성들과 남자 형제보다 공부를 잘하면 집안에 문제를 가져온다고 여겨지던 인물들이다. 그들에게는 가족을 지켜야 하고 집안을 일으키는 남성의 보조자이거나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채의식이 남아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바리데기>의 대리아들의 욕망과 부채의식의 잔상이 소설 『바리데기』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 번째 딸을 낳았을 때 집안의 풍경을 살펴보자.

호응, 난 몰라, 또 딸이래.

큰언니가 모두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이제부터 짹짹 소리 없이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밖으로 나갈 생각 말라.

나를 받아낸 할머니는 그냥 핏덩이째로 옷가지에 둘둘 싸놓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미역국 끓일 생각도 못하고 부엌 봉당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는 소리죽여 울고 앉았다가 나를 그대로 안고 집 밖으로 나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인적 없는 숲에까지 갔다. 엄마는 소나무 숲 마른 덩굴 사이에 나를 던지고는 옷자락을 얼굴에 덮어버렸다고 했다. 숨이 막혀 죽든지 찬 새벽바람에 얼어 죽든지 하라고 그랬을 게다.<sup>17)</sup>

17) 황석영, 『바리데기』, 창작과비평사, 2007, 9쪽

바리의 엄마는 힘든 산고를 겪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단순히 딸이기 때문에 가족은 모두 숨을 죽인다. 할머니는 미역국을 끓을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고 어머니는 마치 불행의 씨앗을 난 것처럼 아이를 소나무 숲에 가져다 버리고 온다. 바리는 아들을 간절히 희망하는 현실 공간을 채우지 못하는 결핍된 존재로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부터 그녀는 온전한 여성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 바리는 결여된 성의식을 가지며 동시에 부채의식과 대리아들의 잔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진다. 이때 바리가 가지는 양성성은 자발적 양성성이 아니라 강요된 양성성이다. 바리는 살아가더라도 버려진 상황에서 죽지 않아야 하는 영웅의 비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현실의 공간을 채울지라도 남자아이의 자리를 대리 충족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공간 채우기의 거짓된 입장이다. 바리는 끝없이 남근 회귀 원망을 자극 받으면서 영원히 결핍된 존재로 대리 아들의 자리를 채워주어야 하는 운명을 가진다. 만약 바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적 특성을 가졌다면 그것 역시 타율적으로 주어진 성적 특성일 수밖에 없다.

바리는 대리아들의 욕망이 빚어낸 가상의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부채의식을 지닌다. 또한 그러한 욕망의 잔상은 그녀를 온전한 여성이 아니라 타율적 양성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 일종의 강요된 타율적 양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 이야기에 흔히 보이는 양성성의 구조이다. 그래서 이 양성성에는 일종의 남성주의 시각에 대한 저항의식이 드러난다. 여성은 제국주의와 남성중심 사회에서 타자로 전략해버리기 쉽다. 바리는 “나에게 이상한 능력이 있다는 걸 나는 우리 가족들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부모를 찾으려고 부령 근처까지 갔다가 여러 혼들을 만난 사실을 여기서는 보호자나 다름없는 미꾸리 아저씨에게조차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누구에게나 평범한 보통 여자아이로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다.”<sup>18)</sup>라고 말한다. 바리는 자신을 알아주

---

18) 앞의 책, 107쪽.

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강아지 칠성이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짐작할 뿐이다. 바리와 같은 인물 재현은 양성성을 가진 인물의 자기치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릴 적 바리는 자신처럼 버려진 강아지 칠성이를 구하고 병어리 언니 숙이의 대변자가 된다. 즉 약한 자의 편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삶을 어루만지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녀는 무병을 앓고 나서 샤먼적인 기질을 가지게 되고 현실의 존재가 아니라 사이에 낀 문지방적 존재가 된다. 이는 대리아들의 욕망의 잔상이 만들어낸 초월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부채의식의 잔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희망을 가져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희망을 버리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 없지. 네가 바라는 생명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만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어떤 지독한 일을 겪을지라도 타인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sup>19)</sup>라는 부분에서 바리의 운명은 매우 강요된 전통적 이면서 타율적인 양성성을 가진다. 첫 번째 양성성은 다소 전통적인 의미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일종의 강요된 양성성이다. 대리 아들의 부채의식과 결부된 양성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가진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세상을 위한 구원의 표상될 것임을 암시한다.

### 3. 터잡기와 땅 굳히기의 도정으로써 보편적 양성성

소설 『바리데기』의 주인공 바리는 북한, 중국, 영국 등으로 떠도는 디아스포라적인 세계적 인물이다. 고인환은 바리의 여정이 병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서천에서 생명수를 구해오는 바리 공주와 동궐에 놓은 여정이라고 평했다.<sup>20)</sup> 그러나 바리의 삼국 여정을 일괄적으로 평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 궁극적으로 바리가 터를 잡은 곳은 영국이기 때문이

---

19) 앞의 책, 286쪽.

20) 고인환, 위의 책, 190쪽.

다. 그녀의 삶의 여정에는 늘 죽은 할머니와 칠성이가 이정표로 등장한다. 소설 『바리데기』에서 바리는 새로운 곳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터를 굳히는 당찬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서사무가 <바리데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바리가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잘 성장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오는 여정과 비교된다. 자신의 부모를 찾아온 바리는 병든 아비를 위해 서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난다. 그녀는 길을 가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저승의 약수를 지키는 동수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아주기에 이른다. 우리 민간 신화 속 여신들의 모습은 바리의 경우처럼 시련에 가득차지만 결코 굴하지 않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다. 남성들을 대신해서 집안을 지키고 가족을 돌보고 삶을 이겨낸다. 우리의 민간신화와 무속신화에서 등장하는 여성성은 매우 양성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새로운 곳에 이주한 여성들은 하나같이 고통과 수난을 기꺼이 참아가며 땅을 일구고 물을 가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들은 땅의 주인이 되기에 이른다. 바리공주 역시 그러한 여성 신들의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리 여신들의 터 잡기와 땅 굳히기는 그녀들의 양성적인 속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고통에 굴하지 않고 운명을 개척하는 여성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소설 『바리데기』의 주인공 바리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다. 전통서사무가의 주인공 바리가 무속신화의 인물 중 어떤 인물들의 양성성과 연관되는지 살펴보고 그녀의 터 잡기와 땅 굳히기의 도정을 살펴보자.

전통서사무가 <바리데기>와 연결될 수 있는 양성성의 주인공을 생각해볼 때 대표적으로 <세경본풀이>와 <송당본풀이>의 여성 주인공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들은 양성성의 속성으로 이주한 여신들의 터 잡기와 땅 굳히기의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신화 속 여신들은 하나같이 이주한 신들이기 때문에 터주신인 남성 신과의 갈등을 자주 빚는다. 특히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와 <송당본풀이>의 백주또는 양성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바리의 속성과 비교될 만하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스스로 자청해서 남장을 하는 여인이

다. 바리가 생명수를 얻기 위해 서천으로 갈 때 남장을 하는 것과 비교된다. 신화 읽기가 미토스 안에서 로고스를 찾는 것임을 상정할 때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여성의 몸으로 네 명의 남자와 어떤 역학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청비는 먼저 하늘나라 목도령을 사모한다. 그리고 곧바로 남장을 감행할 정도로 강단 있는 여성이다. 따라서 사랑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진다. 다음으로 부모 특히 아버지와 대립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여자로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재주를 가졌기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만다. 또한 자기 집의 정수남이라는 하인이 자신을 범하려 하자 지혜를 발휘해서 그를 물리친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시련에 기꺼이 도전함으로써 오곡을 얻어 곡모신이 된다. 제주 무속신화의 담론을 통해 신화 담론을 권력과 관련된 언어의 양상물로 볼 수도 있지만 신화담론 자체를 의미의 양상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양성성을 통해서 남자들의 세계와 맞서기도 하고 남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기도 하면서 곡모신의 자리를 찾는 양성적인 인물이다.

<송당본풀이>의 백주또 역시 양성성의 인물로 꼽을 수 있으며 바리와 비교해볼 수 있는 인물이다. 이주한 여신들과 터주신인 남성신들의 결합이 제주도 무속신화의 혼인설화였다. <송당본풀이>의 구도는 제주도 창조신화의 흔적이 남아있다. 제주 무속신화에서 여신은 주로 농경과 관련이 있다. 그녀들이 성으로 입성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바로 오곡의 곡식과 소와 말이다. 이것들은 농경문화의 산물로써 수렵문화를 이루는 토착 남신들과의 갈등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 삼성혈에서 솟아난 남신과 바다 건너 곡식을 가지고 온 여신들은 험난한 부부생활을 시작한다. 이들 부부는 식생활 문화에서부터 모든 소소한 문화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먹지 말아야 하는 고기를 먹어서 갈등을 보이는 신들이 유독 제주 무속신화에 많은 것은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제주 무속신화의 부부들은 유교 사회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가정과는 매우 다르다. 즉 부부의 역학적 관계가 매우 자의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송당본풀이>에 등장하는 부부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권력 투쟁으로 볼 수 있고 토착신과 유입신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다. 솟아난 남신과 외지에서 들어온 여자들이 순탄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김정숙은 이야기 한다. 밭을 갈아야 하는 소를 잡아먹어버린다거나 거름을 공급하는 돼지를 잡아먹어버리는 것은 부부 신들의 갈등의 원천이었다. 이는 생태적인 삶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송당본풀이>에서 부부 신들이 “땅 가르고 물 갈라서” 분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다는 것 역시 기존 다른 지역의 신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소이다. 제주의 신화에는 남성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여성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남성의 절대적인 권위가 없다. 척박하고 불리한 자연환경에서 삶의 주역으로 활동해야 했던 제주의 여신들은 자신들의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주 여성 신들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남성의 질서에 전복과 위반을 가져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 인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존재인 양성성의 현대적 인간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라산에서 솟아나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는 남성 신들에게 어느 날 오곡과 송아지를 가지고 외지에서 이 섬에 찾아든 여성 신들의 결합이 <송당본풀이>의 내용이다. 즉 수렵문화와 농경문화의 충돌이 바로 남성 신과 여성 신의 갈등과 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렵을 하던 습관을 가진 남성 신은 여성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농경의 도구인 짐승을 잡아먹어 버린다. 여성신은 남성 신에게 과감히 헤어지자고 제안하고 자식들을 손수 거둔다.<sup>21)</sup> 이주한 여신들은 남성 신들과 대결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혀간다.

소설 『바리데기』의 바리 역시 자청비와 백주또처럼 이주한 여신이 현대에 현현된 모습이다. 그녀는 북한에서 가족과 헤어져서 중국으로 오지

21) 표정옥, 「한국 여성 신화에 나타난 양성성의 욕망과 문화적 의미작용 연구- 제주도 무속신화 속 여성의 현대적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6집, 대구가톨릭대학교, 2011.

만 결국 가족들과 영원히 헤어지고 만다. 바리는 어릴 적 강아지 칠성이와 병어리 숙이 언니의 대변자였던 것처럼 약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 마사지를 배운 바리는 사람의 몸을 만지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신통력을 가진다. 서사무가 <바리데기>에서 오구대왕은 바리를 버리면서 시름시름 앓아간다. 그의 유일한 치유방법은 바리가 가져오는 저승의 약수이다. 바리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위해 서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고 그곳에서 동수자의 아내가 된다. 세 아들을 낳고 키우지만 동수자는 아들들과 바리를 남겨두고 떠나버린다. 바리는 죽은 아버지를 살려내고 자신에게 남겨진 아들들 셋을 모두 거둔다. 현실이라는 모진 공간에 결코 굴하지 않고 땅 굳히기에 성공하는 셈이다.

소설 『바리데기』 속 바리 역시 세계 어느 곳에 있던 단순한 탈북자로서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아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바리의 태도는 그를 단순한 여성 이주노동자에서 삶의 주체로 거듭나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sup>22)</sup> 바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항상 긍정하고 적극성을 가진다. 그녀는 안마기술을 터득하고 사람들의 아픈 곳을 알아보는 능력이 생긴다.

나는 낙원에서 일한 지 팔개월쯤 되어 안마사가 되었다. 내가 중국 호구가 없으니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아니고 다만 기술능력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른 안마사 언니들처럼 입장료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손님이 주는 팁은 가질 수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잔심부름이나 하고 취사나 도와주던 전보다는 형편이 훨씬 나아졌다.

어려서부터 그랬지만 나는 참 이상한 아이다. 손님의 발을 안마해 주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나는 상대의 얼굴을 한번 살피고 발을 보면 그의 몸 어디가 안 좋은지를 금방 알아보았다.<sup>23)</sup>

22) 유경수, 「다원적 소통을 향한 디아스포라적 상상력-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7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444쪽.

23) 앞의 책, 109쪽.

바리의 터 잡기와 삶의 양성적인 태도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서부터 온다. 바리는 중국에서 영국으로 밀항에 성공한다. 영국에서 그녀는 알리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영국에 함께 밀항해서 온 상 언니는 터 잡기에 실패한 모습을 보인다. 9.11테러로 인해 이슬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시절에 그녀의 남편 알리는 동생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고 그녀는 혼자서 알리의 아이를 낳아 키운다. 그러나 상 언니의 방문으로 빛어진 어린 아이의 죽음을 겪어야 하는 불행을 겪는다. 현실 속 바리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서천의 물을 구해오지는 못한다.

할아버지, 세상을 구해낼 생명의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대답없이 나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다렸다.  
며칠 동안 긴긴 꿈을 꾸었어요. 내가 생명수를 찾아헤매는 꿈어요.  
압둘 할아버지는 내 손을 가만히 당겨주고는 쓰다듬으며 말했다.  
희망을 버리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지. 내가 바라는 생명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어떤 지독한 일을 겪을 지라도 타인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된다.<sup>24)</sup>

현실의 바리가 가질 수 있는 생명수는 희망뿐이다. 즉 생명수는 희망을 지칭하는 상징어이다. 이주한 현실의 여신이 가져야 하는 터 잡기의 생명수는 바로 희망이며 땅 굳히기 생명수 역시 희망뿐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바리는 여성성보다는 양성성을 요구받는다. 바리는 아이를 죽게 한 상 언니를 용서하고 아이의 넋을 풀어주고 나서야 무사히 돌아온 남편 알리를 만난다. 바리는 관용을 베풀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양성성의 인물이

---

24) 앞의 책, 286쪽.

다. 전통서사 무가인 <바리데기>가 국제화 사회의 보편적 정서와 소통되는 지점이다. 한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는데서 나아가 세계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확대된 의미가 바로 전통 서사 무가 <바리데기>의 사상이다. 황석영은 현대의 바리를 통해 전통 서사 무가 속의 <바리데기>를 살려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바리를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강인한 인간성과 완전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보편적 양성성에 기인한다.

#### 4. 과도의 존재에서 소통의 창조자로 가는 세계적 양성성

전통 서사무가 <바리데기>는 버려진 딸이지만 결국 부모를 위해 서천을 갔다 오고 그 아버지를 구하는 여성 영웅이다. 즉 그녀는 이승에서 버림받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들어가서 저승세계의 질서를 이승에 옮긴 후 다시 저승으로 돌아간 과도의 존재이다. 그러나 죽은 아버지를 구하고 죽은 자와 산자를 연결하는 소통의 신이 된다. 그녀는 후에 저승을 지키는 삼신할미가 된다. 즉 생명을 관장하는 여신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소설 『바리데기』는 오늘날 새로운 현상인 이동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되풀이되는 전쟁과 갈등의 세기에 문화와 종교와 민족의 빈부차이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다원적 조화의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시도된 작품이라는 평을 받는다.<sup>25)</sup> 소설 『바리데기』에서 바리 역시 소통과 치유자로서 과도의 존재이다. 소설에서 바리 역시 신화의 소통과 치유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신화전락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즉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자신과 세상을 구원한다는 서사무가의 서사적 상상력이 그대로 소설에 이어지면서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이야기가 세계적인 보편성과 친연성을 가진다. 바리는 모성과 여성보다 양성성의 여신으로서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그녀의 양성성이 세계적인 친연성을 가지는 이유는 디아스포라의 다문화 시대

---

25) 지용신, 위의 책, 326쪽.

를 극복하는 소통의 매개자이기 때문이다. 바리는 전통적인 한국의 여성성에서 탄생했지만 결국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다.

할머니, 옛말해주어. 바리공주가 빨래하고 밥해주고 나무해주고  
원갓 천한 일 다해주고 지옥까지 갔었지. 지옥에 혼령들 구해주고  
공주도 지옥에 떨어졌다간 서천에 왔지.

기래기래, 다 기억하구 있구나. 서천에 당도하니 장승이 지키구  
이서. 장승하구 내기시행에 저서 살림해주구 아 낚아주구 석삼년을  
일해주어야 약수를 구해주겠다구 허는 거이야. 바리하구 장승이가  
침에 어드러케 만났잖나. 푸르구 누른 질루 가지 말구 흰 질루만  
가시오 허는 도움을 받으며 가는데, 저 앞에 키가 구척에 시커먼  
장승 걸은 놈이 나타나. 아이구아이구, 어찌하면 좋을까, 저놈 앞이  
잡히우문 걱정이루다 하다간, 그러나 저거 아무래두 열려야지 슬렁  
슬렁 열려야지.

할머니, 바리가 장승이에게 서천 가는 길을 물었지?

기래기래, 장승이가 대답 왈, 서천이 어디 있잖나 너가 나하구  
살아야지. 우리 하나바지 색시가 없어서 야든하나에 장궤 갔는데,  
내가 널 만났으니까디 나하구 살아야지. 슬렁슬렁 슬렁슬렁 열러가  
지구 들어서서 가는데 장승이 돌렸다 뿔라구 기래.

내가 바리공주가 되어 말한다.<sup>26)</sup>

위에서 인용문에서 보듯이 소설 『바리데기』 속 바리는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자신을 전통서사 무가인 <바리데기>의 주인공 바리와 동일시한다. 즉 전통적인 바리와 세계적인 고통을 감내하는 현대의 세계시민 바리가 일치되는 지점이다. 할머니와 함께 흰등이가 낚은 일곱 번 째 강아지 칠성이의 안내 역시 바라의 안내자이다. 할머니와 칠성이는 바리의 조력자로 작용한다. 이주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바리는 소외된 민족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되는 민족과 국민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있는 문화소통자이다. 바리데기의

---

26) 황석영, 위의 책, 184쪽

신화는 저승과 이승을 이어주는 소통의 원형신화로써 작가가 천명한 대로 그리스의 오르페우스 신화, 북유럽의 오딘 신화,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 등을 떠올리게 한다.<sup>27)</sup> 이들 신화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저승을 다녀온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들 신화에는 현실의 질서가 또한 들어가 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현실원리가 또한 작용한다. 바리는 저승을 다녀온 이후로 현실의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 역시 오르페우스의 부인 에우리디케 역시 죽음의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시리스 역시 부인 이시스에 의해 부활되지만 결국 지하세계의 왕으로 남는다. 이는 죽음과 현실의 공간이 철저히 나누어졌다는 현실원리이자 신화원리이다.

바리 원형신화는 고통을 치유하는 소통의 매개자이자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희망의 창조자일 것이다. 생명수는 소생이자 희망이며 염원일 것이다. 그녀는 에밀리 부인의 과거를 보면서 그녀의 마음을 얻는다. 에밀리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타일랜드 여자와 낳은 아들 토니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고 토니 엄마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녀를 손수 면회하기에 이른다. 그녀는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된다. 이는 바리가 가지는 소통의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물론 세계는 충돌과 전쟁과 미움으로 늘 번잡하고 혼란스럽지만 새로운 민족의 질서는 바리처럼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

아니, 할일이 좀 남아 있지 않네? 너 가구 오는 길에 질문하는 사람덜 많이 만난다구.

응, 옛말에 바리공주두 저승 가서 알아가주구 오갔다구 기렸대서.

오오, 기렸다. 글카구 생명수두 찾아내야지비.

할머니가 바다를 향하여 돌아서자 나무로 만든 조선패 한척이 나타난다. 배는 내 키의 다섯 배 열 배만큼 컸는데 황포 돛대가 두 개나 달렸고 위로 오를 수 있도록 구름다리가 내려와 있다. 할머니가 내 등을 밀어준다.<sup>28)</sup>

27) 앞의 책, 295-301쪽.

28) 앞의 책, 265쪽.

바리는 희망이라는 생명수를 현실세계에 퍼 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옛말에 바리공주두 저승 가서 알아가주구 오갔다구 기뤼”던 것처럼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바리의 역할은 여성과 남성을 넘어서는 소통의 양성성을 부여받는다. 바리는 압둘 할아버지에게서 삶의 원리를 배우고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고 상 언니의 배신을 용서한다. 바리는 자신의 삶의 생명수가 세상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숙명에 긍정한다. 즉 바리는 한국 전통 서사무가에서 탄생한 캐릭터이지만 세계문학에서 디아스포라의 현상을 느끼면서 세계시민으로 소통하는 법을 찾아가는 양성성의 인물이다. 황석영은 바리를 통해 북한 사회의 탈북과 경제 빈곤만을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본주의의 무자비한 질서와 이동과 경계의 세계 문화 속에서 디아스포라 의식을 가진 세계시민들의 정신적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다. 황석영은 『미래의 문학』이라는 책에서 <질문의 시작<sup>29)</sup>>이라는 글을 통해 아시아에서 역사적 경험의 공통성과 이질성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시선을 한국에서 동아시아로 다시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확장하면서 보편적 문학관을 정립하고 있다.

## 5. 나오며

질베르 뒤랑에 의하면 사회적 조직이나 제도는 쉽게 단원화되는 데 반해 사회적 이드(Id)는 다원적이면서도 풍요롭고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한다.<sup>30)</sup> 신화는 대표적인 사회적 이드이다. 바리의 신화는 좁게는 한국의 서사 욕망이지만 좀 더 크게는 동아시아의 신화 욕망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보편적 신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다문화시대에 디아스포라는 보편적 정서가 되어버렸다. 바야흐로 우리사회는 다문

29) 황석영, 『문학의 미래: 현대 사회와 문학의 운명-동아시아와 외부세계』, 중앙북스, 2009, 194쪽.

30) 질베르 뒤랑, 유평근 역,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살림, 2002, 201쪽.

화 사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도 바리와 같은 인물이 끊임없이 생길 것이다. 자신의 존재에서 더 나아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세계의 문화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의 원형일 것이다. 김성곤은 황석영의 문학세계가 한국을 초월해 아시아로 뻗어나가고 결국은 세계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1)</sup> 본고는 황석영 문학의 세계화에 여성 인물의 양성성이 놓인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양성성을 가진 인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1) 김성곤, 『글로벌 시대의 문학: 세계 문학 속의 한국문학』, 민음사, 2006, 329쪽.



## 기본자료

황석영, 『바리데기』, 창작과비평사, 2007.

## 방송자료

「한국문학: 유럽서 뿌리 내리다」, 『서울신문』, 2012. 4. 10.

「소설 한류, 유럽 독자 사로잡다」, 『기자수첩』, 2006. 2. 3.

「라디오: 시사자키-황석영과의 인터뷰」, 2011. 6. 9.

「황석영 “낮선 일상 ‘보편성’으로 버무려..... 낸 만년문학 전환점”」 『경향신문』, 2011. 6. 1.

## 단행본

게르트 브란트베르그, 노옥재 외 역, 『이갈리아의 딸들』, 황금가지, 2011.

고혜경,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 한계레출판, 2006.

김성곤, 『글로벌 시대의 문학: 세계 문학 속의 한국문학』, 민음사, 2006.

김열규, 『한국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학술정보, 2001.

김정숙,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 각, 2002.

김화경, 『세계 신화 속의 여성들』, 도원미디어, 2003.

댄 킨덜런, 최정숙 역, 『알파걸』, 시대의창, 2007.

동아시아고대학회, 『동아시아 여성신화』, 집문당, 2003.

로버트 A. 존슨, 고혜경 역, 『신화로 읽는 남성성He』, 동인, 2006.

\_\_\_\_\_, 고혜경 역, 『신화로 읽는 여성성She』, 동인, 2006.

메리 E. 위스너-뱅크스, 노영순 역, 『젠더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9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 『메피스토펠레스와 양성인』, 문학동네, 2008.

박성창, 『글로벌 시대의 한국문학』, 민음사, 2009.

버지니아 울프, 이미애 역, 『자기만의 방』, 민음사, 2006.

- 버지니아 울프, 최홍남 역, 『올랜드』, 평단, 2008.
- 소포클레스, 천병희 역, 『오이디푸스왕, 안티고네』, 문예출판사, 2006.
- 장영란, 『신화 속의 여성, 여성 속의 신화』, 문예출판사, 2004.
- 질베르 뒤랑, 유평근 역,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살림, 2002.
- 최재천, 『여성 시대에는 남성도 화장을 한다』, 궁리, 2007.
- 황석영, 『문학의 미래: 현대 사회와 문학의 운명-동아시아와 외부세계』, 중앙북스, 2009.

## 논문

- 고인환,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전통 양식 전용 양상 연구-『손님』, 『심청』,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6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 권성우, 「서사의 창조적 갱신과 리얼리즘의 퇴행 사이-황석영의 『바리데기』론」, 『한민족문화연구』 제24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 김경수, 「작가의 욕망과 소설의 괴리-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대한 한 생각」, 『황해문화』 겨울호, 2006.
- 김미영,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 29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 류보선, 「모성의 시간, 혹은 모더니티의 거울」, 『심청 하』 해설, 문학동네, 2003.
- 문재원, 「황석영 『심청』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한국문학논총』 43, 한국 문학회, 2006.
- 미야자마 히로시, 「황석영 『심청』과 19세기 동아시아」, 『역사비평』 67, 역사문제연구소, 2004.
- 박숙자, 「여성의 몸을 탐하는 남성의 서사-황석영의 『심청』과 김영하의 『검은 꽃』」, 『여성과 사회』 제16호, 한국여성연구소, 2009.
- 박승희, 「민족과 세계의 연대방식-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7권, 한민족어문학회, 2010.

- 박정근, 「디아스포라로 인한 다문화 사회의 바리데기적 비전-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1호, 한민족문화학회, 2009.
- 서영채, 「창녀 심청과 세 개의 진혼제-황석영의 『심청』 읽기」, 『문학과 윤리』, 문학동네, 2005.
- 심진경, 「한국 문학은 살아 있다-소설과 황석영과의 대화」, 『창작과 비평』 가을호, 창작과비평, 2007.
- 양진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1집, 한민족어문학회, 2008.
- 유경수, 「다원적 소통을 향한 디아스포라적 상상력-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7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 이명원, 「약속없는 시대의 최저낙원-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대하여」, 『문화과학』 가을호, 문학과학사, 2009.
- 이용균, 「황석영 ‘성장소설’에 나타난 모티프 연구」, 『우리문학연구』 29집, 우리문학연구회, 2010.
- 조미숙, 「한국문학의 세계문학의 가능성: 신상성을 중심으로」, 『인문사회논총』, 용인대학교, 2007.
- 지용신, 「문학사 밖의 문인들: 재현된 서사와 이산체험의 복원-천운영의 「잘가라 서커스」와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27, 2008.
- 황석영, 「삶과 글쓰기」, 『진보평론』 8, 현상에서 미래를,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Afterimage and the Meaning  
of Baridegi Represented as Androgeny in Modern World  
Culture of Moving and Its Barriers  
: Focusing on Hwang Suk-young's *Baridegi*

Jung Ok Py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is to study about the cultural afterimage and the meaning of *Baridegi* represented as androgeny in Modern World culture of moving and its barriers, focusing on Hwang Suk-young's *Baridegi*.

This study examines three aspects of the androgeny of *Baridegi*. First, the androgeny is respected as a desire of a proxy son and the female consciousness of debt. Women were born as unwanted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Thus, many women were forced to live as man-like women. They had to go through male and female personalities simultaneously but unwillingly.

Second, we need to look into the androgeny of immigrant women, who had to settle in a new place and had to live bravely. In our mythical imaginations, an immigration of women is not a unique event anymore. They settle in an unknown land and live successful lives. They had a common talent of androgeny. Androgeny is an open mind towards others with creative spirit. An androgenous woman is positive. Third, the androgenous woman is a communicative mediator. They have a generate attitude towards others. In the novel *Baridegi*, we look into an androgeny women as universal values.

**Key words** : moving and barrier, androgeny, *Baridegi*, cultural afterimage, meaning, mythical strategy, modern world culture

논문접수일 : 3.15 / 심사기간 : 3.16~4.5 / 게재확정일 : 4.10
---